

썩은 복숭아 찾기

박 다정

살아가면서 항상 운이 좋았다. 로또 당첨 같은 운은 아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돌려받는다던가 하는 사소한 운이 좋았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꼭 누군가가 찾아준다거나 휴대폰을 두고 왔을 경우 꼭 주위의 친구들이 챙겨주었다. 다른 종류지만 며칠 전의 일도 그랬다.

“학생. 잠깐만요.”

복숭아 한 상자를 사고 킁킁대며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과일가게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불러 세웠다. 물건 값을 잘못 받아서 부른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저씨는 박스 안의 복숭아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 썩은 거 하나를 봤었는데.....”

아저씨는 상자 구석에 가려져있던 썩은 복숭아를 멀쩡한 복숭아로 바꿔주셨다. 내가 고작 이거 때문에 힘들게 뛰어오셨냐며 묻자 아저씨는 웃으시며,

“당연히 바꿔드려야 하는 건데요.”

집으로 돌아와 먹은 복숭아는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가게에 가도 똑같은 평범한 당도의 맛이였다. 하지만 복숭아 하나, 하나가 단단하고 싱싱했다. 재밌는 것은 상자 속 복숭아 중에 아저씨가 바꿔 준 복숭아가 가장 맛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저씨와의 일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고 그런 운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치매 걸린 할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전담하고 계셨다. 늘 웃는 얼굴로 밝게 일하던 엄마였던지라 드디어 업무 스트레스가 폭발했구나 싶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피 섞인 가족도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들이 힘들게 했어?”

엄마는 나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다. 저녁 식사 중에 꼭 틀어놓곤 하던 텔레비전 뉴스도 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정적 속에서 밥을 먹었다. 식기 부딪치는 소리와 음식물 씹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나와 가족들은 눈치만 보다 서로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뉴스에 우리 동네 나오는 것 봤냐며 호들갑이었다. 영문을 몰라 친구에게 묻자 친구는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치매 할머니 폭행해서 요양원 문 닫았대. 여기 우리 동네 맞잖아. 이 가게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그치?”

설마 엄마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가슴이 철렁했다. 엄마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어제 정황을 비춰 본다면 충분히 의심이 갔다. 치매 할머니를 담당했던 엄마. 나의 질문에 아무 말 않던 엄마. 무슨 생각으로 친구와 놀았는지 모르겠다. 멍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이리저리 끌려 돌아다니고 나니 집에 도착해 있었다.

현관문을 여니 엄마의 신발이 보였다. 평소보다 이른 엄마의 퇴근 귀가였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보았다. 다행히 친구가 말한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의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엄마. 혹시 그, 엄마가 말하던 치매 할머니 말이야.”

어찌된 일인지 나의 말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응. 엄마 할머니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뭐. 엄마 요새 회사생활 어떤가 궁금해서.”

“평소랑 똑같지. 산책시켜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찡그렸다. 나도 따라 갑자기 긴장되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난무했다. 할머니를 때리는 엄마. 정말로 엄마가 때린 거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엄마 편을 들어야 하나 사회의 편을 들어야 하나. 그래도 엄만데 엄마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야, 안되지. 그럼 내가 평소에 혐오하던 연고주의랑 다를 게 뭐야. 만약에 지금 엄마가 폭력

을 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엄마의 편을 들 수 있을까.

“엄마가 어제 화났던 이유가 그거야. 아니, 요양보호사 씩이나 돼서 할머니들 밥이랑 간식을 먹는 게 어디 있어? 할머니들 돈도 가끔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튀어나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이어지는 말은 더욱 놀라웠다.

“오늘 그 사람들한테 호되게 말하고 왔어. 지들끼리 뒤에서 씹어보라지. 창피한 게 누군데 말이야.”

엄마는 어제와 같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순간 엄마의 편을 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엄마를 두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나는 엄마에게 어제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도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 봤지?”

“응. 우리 요양원 바로 옆인데 오늘 엄청 떠들썩했어.”

“난 엄마가 어제 너무 심각해서 엄마가 그런 줄 알았어. 미안해.”

“뭐어?”

엄마는 아프지 않게 내 팔뚝을 때리며 썰쩍하게 쳐다보았다. 엄마는 그래도 너희에게 창피할 일은 절대 안 하고 산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평소에 할머니들의 성질에 지쳐 돌아오는 엄마와 판판인 모습이었다.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요양보호사지. 할머니들 손으로 할머니를 때리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손을 빌려 할머니들 주머니를 제 주머니인 양 여기는 거, 그게 제일 못된 거야.”

텔레비전에서는 막 뉴스가 시작되는 참이었다. 한 정치인의 비리를 말하는 뉴스였다. 같은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엄마의 말은 계속되었다.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정치인. 저 정치인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제 주머니인 양 여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내 주머니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내 손과 발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무서웠다. 엄마에게는 이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 힘으로 답을 찾고 싶다는 욕심에서였다.

엄마는 얼마 가지 않아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 요양원 사람들과의 의견충돌이 좁혀지지 않은 듯 했다. 엄마는 사직서를 쓰고 나온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밝게 웃었다. 나의 대학교 학비는 어떻게든 대주겠다며 씩씩하게 얘기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하던 중 며칠 전의 그 과일가게를 지나게 되었다. 과일가게의 과일들은 모두 싱싱한 것들로만 나와 있었다. 엄마는 내가 그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먹고 싶은 과일이 있는 거냐며 물었다. 그 소리에 과일가게 아저씨께서 밖으로 나왔다.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물었다.

“저번에 복숭아는 맛있게 먹었어요?”

살아가면서 항상 운이 좋았다. 로또 당첨 등의 운은 아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돌려받는다면 하는 사소한 운이 좋았다. 이제야 그 운의 근원지를 찾았다. 아니, 사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을 만나왔을 뿐이다. ‘썩은 복숭아를 찾는 사람들’을 말이다. 여전히 정치인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저지를 비리들은 무섭다. 하지만 내 주머니가 사라지고 내 손과 발이 사라지더라도 제 손으로 썩은 복숭아를 찾아줄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의 썩은 복숭아를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엄마 또한 썩은 복숭아를 찾아 사람들에게 알렸다. 답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곳곳에 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엔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주는, 썩은 복숭아를 찾아주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도 누군가의 썩은 복숭아를 찾기를 바란다.